

곳곳 SUV 전초기지 자부심... 생산성 제고 1만대 ↑

Q 르포 | 근무체계 바뀐 쌍용차 평택공장 가보니

코란도·티볼리 등 핵심제품 생산 주·야간 모두 8시간씩 근무 정착 이후 年 약 1만대 추가 제작 가능 직원들도 근무 시간·형태 만족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맞추기 위해 주간 조와 야간 조 모두 8시간 근무로 변경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합의한 결과다. 덕분에 자동차 생산성이 증가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효율적인 생산관리의 비결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주간 연속 2교대제에 있었다. 쌍용차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근무 체계가 바뀐 후 생산 라인에서 연간 자동차 약 1만대를 추가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평택공장은 49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축구장 면적의 14배인 86만㎡ 부지 공장은 코란도·티볼리·렉스턴 등 'SUV 명가' 쌍용차 핵심 전력을 생산하는 전초기지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기존 22대였던 시간당 생산량이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한 이후 16대씩 32대로 늘었다”며 “조립 공장에선 최근엔 1시간에 17대까지도 작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곳곳에 점심시간과 교대 시간을 잘 지키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바뀐 근무 체계를 확실히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 슬로건에 따라 직원들은 식사 시간과 교대 시간을 지켜 일한다.

주말 근무나 야근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조립 3팀 근무자는 “특별한 일 없으면 주말에 일을 한다.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수입에도 도움돼 좋다”며 현재 근무 시간과 형태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가 만들어지는 순서에 따라 프레스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머리 위로 30~40톤의 금형이 지나고 있었다.

프레스공장에서는 차의 외관을 만든다. 자동차생산의 첫 번째 단계다. 이곳에서는 철판코일을 사각모양으로 펴준 후 금형으로 찍어 차체 모양으로 만들어 차체공장으로 공급한다. 프레스 1공장은 지난 1993년, 2공장은 1996년에 각각 설립됐다.

차체공장에서는 용접작업을 통해 차의 모양을 만든다.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셈이다. 도장공장은 자동차의 색을 결정하는 곳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인은 도장공장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직원들이 차체를 조립하고 있다.



/배한남·홍민영 수습기자

이다. 조립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라인과 달리 근로자들의 손이 많이 가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도장공정을 거친 차체들이 각자의 주문 시 옵션에 따라 조립되고 있었다. 각 구역에서는 직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주시하며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으로 이뤄진 시스템은 차례차례 알파벳 'U' 자 형태로 정렬돼 있었다. 공간 활용성은 좋지만 작업이 끝날 때마다 차체를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직선형태 라인의

공장에 비해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직선 설비로 바꾸려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23조(공장 총용량의 집행)에 따라 공장 부지를 늘리지도 못한다. 이 조항 2호는 '시·도지사는 공장건축량이 지역별 총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달리 안전도는 낮아보였다. 차체공장에서는 로봇이 용접 작업을 진행할 때마다 불티가 튀었다. 사람 눈으로 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러나 공장 내에는 불티가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는 없었다.

또한 공장 내 소음을 차단하는 이어폰을 직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듯 했으나, 실제 작업 시 착용하는 인원은 10명 중 4~5명에 불과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최고 온도가 500도 이상까지 올라가 화재 등 위험이 있고 지속되는 공장소음은 소음성 난청 등 청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용접 때 튀는 불티는 금방 식기 때문에 피부에 닿아도 잠깐 뜨거울 뿐이다. 공장소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직원 안전교육을 통해 차단 장치를 꼭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기자, 배한남·석대성·홍민영 수습기자 ywj964

@metroseoul.co.kr

금호석화, 자기계발 인프라 강화 도전하는 글로벌 리더 키운다

Advertorial Corner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자기계발 욕구가 높은 현대 직장인들의 역량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재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실제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도전하는 글로벌 리더'를 핵심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전자소재 등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금호석유화학그룹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직무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자격제도는 임직원의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제도로 응시료, 학원비, 도서 및 부대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를 통해 최근 지원된 공인자격증으로는 AICPA(미국공인회계사), FRM(재무리스크관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CPIM(생산재고관리사), PMP(프로젝트관리전문가) 등이 있다.

공인자격증 취득을 통해 외부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내부 임직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내 강사양성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사내강사양성제도는 생산, 품질, 환경 등 14개 핵심 직무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임직원을 사내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리더십&자기개발'을 위해 임직원이 2013년부터 WIN K 특강을 시작,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문학과 예술부터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경영기법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화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인재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를 다루는 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은 2011년 독자적으로 개설해 운영해 온 사이버 교육 및 평가 시스템 'WINK-ACADEMY'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더욱 풍부한 교육 콘텐츠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은 연중 64시간의 교육을 달성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 제한은 없으며 야학은 물론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상사나 동료들에게 선물하는 '북클럽' 프로그램도 실시해왔다. 사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동시에 타 부서와의 교류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부서간 직급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촉진시킨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직문화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부서별 직원들이 선정한 다양한 활동에 사장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장님 한끼(氣) 줍쇼', 분기마다 1회 원하는 날 연차소진 없이 조기퇴근 하는 '슈퍼패스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유진 기자

SKC, 고부가 광학용 케미칼 소재사업 진출

우리화인켄 광학소재 제조부문 인수 광학용 폴리우레탄 생산 본격 추진

SKC가 고부가 스페셜티 케미칼 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학용 케미칼 소재는 광학용 폴리우레탄(PU)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원료다.

SKC는 우리화인켄 광학소재 제조부문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광학용 케미칼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SKC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일릴렌 디이소시아네이트(XDI) 등 고부가 이소시아네이트 원천기술을 내재화하고 '고부가 폴리우레탄(PU) 포트폴리오' 기반을 갖췄다.

자사의 PU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거듭해온 SKC는 지난해 8월 광학용 PU 소재 상업화에 성공했다. 여기에

고부가 케미칼 XDI를 내재화하면서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패드(CMP 패드), 자동차 서스펜션용 PU에 이은 세 번째 고부가 PU 아이템이다.

XDI는 고굴절도모머 '싸이올'과 함께 광학용 PU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다. 지금까지는 기술 격차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서만 생산해왔다.

SKC관계자는 “SKC가 광학용 PU 생산을 본격화하면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관련 특허도 60여건을 갖고 있어 SKC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폰 등 IT 기기 사용이 늘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광학용 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PU 소재는 굴절률 등 광학 성능이 뛰어나고 가벼워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

다. 블루라이트 차단렌즈, 편광 렌즈, 다초점 렌즈, 광변색 렌즈 등 기능성 렌즈나 시력 보정용 렌즈로 쓰이며 시장 규모는 6000억원 정도다.

SKC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시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추가투자로 생산량을 늘리고 고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에 양산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관련 기반기술을 발전시켜 고굴절 디스플레이 코팅제 등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로도 확장해나간다.

SKC 관계자는 “SKC는 2016년에 수립한 '글로벌 스페셜티 마케터'라는 비전에 따라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고부가 PU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제4, 제5의 고부가 아이템을 발굴하고 특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기아차, 노후경유차 고객 신차교체 지원

10년 경과 차량... 최대 40만원

기아자동차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체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10년 이상 운행한 경유 차량을 말소등록(폐차 또는 수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아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신차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10년 경과 노후경유차량(최초등록기준) 보유자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감안시 최



대 143만원) 정책' 시행에 맞춰 실시됐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등 대표 차종 구매 시 30만원을 지원하며 카니발, 봉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차량 구매 시 40만원을 지원해 생계형 노후경유차량 보유 고객들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우 기자

LG유플러스 'U+비디오포털'

2019 UAE아시안컵 경기 생중계·다시보기가 '무료'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TV 서비스 'U+비디오포털'에서 6일 개막하는 '2019 UAE 아시안컵'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2019 UAE 아시안컵'의 실시간 경기와 하이라이트 등을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다.

U+비디오포털 '2019 UAE 아시안컵' 모바일 생중계는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타사 모바일 가입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